

2022-09-19 (2022-34호)

9월 19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1,400원 시대 열리나... FOMC 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서울, 9월1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를 전후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1,400원 선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70-1,420원이다.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유가 하락 영향에 두 달 연속 둔화됐지만 근원 물가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전망이 강화됐다.

물가와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이 정점을 지났으리라는 추측에 잠시 들떴던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 CPI 발표 직후 심한 몸살을 앓았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경기침체도 감수하겠다는 매파 연준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연준 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다시 방향성 기로에 서게 됐다.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준 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세 차례 연속 75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100bp 인상 확률도 이전보다 상향 조정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경제 전망과 함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측을 담은 금리 점도표에 모든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6월 회의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3.4%, 내년 말은 3.8%로 제시됐다.

연준 정책 기조를 통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변동성과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도 대외 여건 따라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외환 당국이 1,400원대 문턱에서 고강도 개입을 단행하며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통화 긴축 공포가 확산되며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경우 달러/원은 '빅 피겨' 저항을 뚫을 가능성이 크다.

금주는 영국과 일본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다. 영국은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한편 일본은 기존의 초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통화정책 결과 이후 엔저 확산 여부 역시 핵심 변수다.

또한 주초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한다.

국내 외환 당국이 화요일경 주요 수출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환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주목된다.

한편 21일에는 이달 20일자 수출입 현황(잠정치)이 발표되는데,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와 규모를 통해 외환 수급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차 갖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화 협력 논의 결과도 주목된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9월19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민생물가 점검회의 (09:00)
- ⊙ 금융감독원: '22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15:00)
- ⊙ 금융감독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 작업반」첫 회의 (Kick-off) 개최 (배포시)

9월20일(화)

-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09:00)
- ⊙ 기획재정부: 1차관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09:3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10:00)
- ⊙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잠정) (12:00)
- ⊙ 한국은행: 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BOK경제연구 2022-14호) (12:00)
- ⊙ 한국은행: 2022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9월21일(수)

- ⊙ 관세청: 9.1~2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09:30)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0:00)
- ⊙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12:00)
-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4:00)

9월22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07:3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09: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10:00)
-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11:00)
- ⊙ 금융감독원: '22.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획재정부 직원 연찬회 (18:30)

9월23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11: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9월19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9월	48	49
9월19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YTD)	1~8월		17.30%
9월20일	08:30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CPI)	8월		2.6%
9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9월		3.65%
9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9월		4.30%
9월20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7월		3.24B
9월20일	21:30	미국	건축허가	8월	1.615M	1.685M
9월20일	21:30	미국	주택착공	8월	1.433M	1.446M
9월21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9월16일 주간		255.0
9월21일	23:00	미국	기존주택 판매	8월	4.62M	4.81M
9월22일	21:30	미국	경상수지	2분기		-291.4B
9월2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12일 주간		213k
9월22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9월	-26.0	-24.9
9월23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9월		-9
9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48.7	49.6
9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잠정치	9월	49.0	49.8
9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9월		51.5
9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잠정치	9월		43.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19일(일)

- ⊙ 휴장국가: 일본, 영국

9월20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9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9월 서비스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1일까지)

9월21일(수)

- ⊙ BOJ, 통화정책회의 (22일까지)
-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22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22일 오전 3시30분)

9월22일(목)

- ⊙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9월 제조업 서베이 발표 (자정)
- ⊙ BOJ, 금리발표
- ⊙ 영란은행, 금리발표·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후 8시)
- ⊙ 휴장국가: 호주

9월23일(금)

-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준이 듣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개회사 (24일 오전 3시)
- ⊙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미셸 보우만 이사 "연준이 듣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행사 참석 (24일 오전 3시5분)
- ⊙ 휴장국가: 일본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연준 정책회의 :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긴축 전망이 확대된 가운데 시장은 오는 20~21일 열릴 연준 정책회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은 최소 75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긴축 속도나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일부는 연준이 이번 달부터 월 950억달러로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가속화해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것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 일본은행(BOJ)은 또 정책 동결 전망

투자자들은 22일 나올 BOJ 정책회의 결과도 주시하고 있다. BOJ는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는 달리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이는 이미 달러/엔을 24년 만의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이번 회의 후 환율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BOJ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시세를 묻는 '레이트 체크'를 실시해 개입 경계감을 높였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실제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스위스 중앙은행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으며,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금리가 0.50%로 7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라서게 된다.

### ⊙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할 듯

오는 22일 영란은행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책 금리가 2.25%로 50bp 인상되리라 예상했다. 연말 금리는 3.00%로 전망됐다.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의 23일 감세 관련 성명 발표도 관심거리다. 경기 부양을 위해 리즈 트러스트 신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연말 경기침체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영국 경제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 ⊙ 미국 ·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

오는 23일에는 유로존과 미국의 9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발표된다.

유럽의 9월 제조업 PMI는 에너지 위기와 타이트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48.8로 전달의 49.6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지표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PMI는 경기 확장-수축 분계선인 50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역시 8월의 51.5보다는 하락한 51.2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 ⊙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우크라이나가 최근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며 대반격에 성공했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등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을 전쟁의 전환점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러시아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전쟁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 특히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종합) - 외환당국 연이틀 고강도 달러 매도 개입 추정... 시장 대응 수위 끌어올려

9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이 연이틀 고강도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외환딜러들은 추정했다.

최근 강달러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달러/원 환율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팔라지자 외환당국의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럼에도 환율이 1,400원을 향해 거침없이 오르자 당국은 연이틀 강도 높은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하며 환율 상승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번 강도 높은 개입을 통해 확고한 시장 안정 의지를 보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환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진단이 시장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개장 직후 1,399.0원까지 올라 1,400원을 위협했던 달러/원 환율은 장 후반 외환당국의 실개입 영향에 1,386원선까지 속락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오늘은 정말 공격적으로 개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오늘 외환당국의 매도 개입 규모를 25-30억달러로 추정하기도 했다.

한편 당국은 구두개입과 실개입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시장 관리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외환수급과 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종합) - 中 주요 경제지표 전망 상회... “올해 경제 회복 추세 유지할 듯”

상하이, 9월16일 (로이터) -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전망을 상회하면서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여줬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비 4.2%로 3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또한 애널리스트 전망치이자 7월 기록한 3.8%를 상회한 수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비 5.4%로, 이 역시 전망치 3.5%와 7월 기록한 2.7%를 모두 큰 폭으로 넘어서며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월 고정자산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나, 전망치 5.5%를 웃돌았다. 지난 1~7월에는 5.7%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1~8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해 1~7월(6.4% 감소)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며 이미 고군분투 중인 부동산 부문에 대한 압력을 높였다.

한편, 후링후이 NBS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올해 중국 경제가 2020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올해 전체로는 회복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1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88.0	-0.5%	-14.4%	-8.6%	유로	1.0017	-0.2%	-11.9%	-6.9%
100엔 대비	969.8	-0.2%	6.5%	+1.8%	엔	142.94	-0.3%	-19.5%	-10.3%
유로 대비	1,388.6	-0.2%	-2.7%	-1.9%	위안	6.9705	-0.6%	-8.8%	+2.7%
위안 대비	198.60	0.3%	-5.8%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0,822.42	-4.1%	-15.2%	+18.7%
코스피	2,382.78	-0.1%	-20.0%	+3.6%	나스닥	11,448.40	-5.5%	-26.8%	+21.4%
코스닥	770.04	-1.0%	-25.5%	+6.8%	S&P500	3,873.33	-4.8%	-18.7%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91.09	-2.9%	-22.0%	-4.9%
국고채 3Y	3.767%	22.4bp	196.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767%	16.0bp	175.6bp	+67.6bp	미국채 2Y	3.870%	31.0bp	314.0bp	+61.0bp
국고채10Y	3.772%	15.0bp	152.2bp	+53.7bp	미국채 10Y	3.450%	14.0bp	194.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5.40	-0.8%	13.2%	+55.8%	한국 5Y	31.5bp	-0.4bp	9.5bp	-0.7bp
금(현물)	1,675.32	-2.4%	-8.4%	-3.6%	일본 5Y	20.1bp	-0.2bp	2.5bp	+2.1bp
TR상품지수	3,402.52	-1.0%	1.9%	+24.6%	중국 5Y	70.2bp	2.9bp	29.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